

# 우리말 음절화와 관련된 음운규칙의 적용방법

김 정 란  
(영남대학교)

우리말의 음절은 CVC로 그 최대 크기를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음절말 위치 (syllable coda)에 오는 음은 한정되어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음절말 위치에는 비음 (ㅁ, ㄴ, ㅇ)이나 축음 (ㄷ), 평음의 파열음 (ㄱ, ㄸ, ㅂ)만이 올 수 있고 성문음 (ㄲ, ㅃ)이나 기식음 (ㅋ, ㅌ, ㅍ, ㅊ), 마찰음 (ㅅ, ㅆ, ㅎ)과 파찰음 (ㅈ, ㅉ, ㅊ)등은 자리하지 못한다. 음절첫음의 경우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ㄹ'의 경우 선행자음이 'ㄹ'이거나, 모음사이에 위치할 때만 'ㄹ'음의 실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말의 음절화와 관련된 규칙과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음절화는 음운규칙의 일종이 아닌 공식(algorithm)으로서 음운규칙과는 적용순서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며, 음운규칙중 음절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규칙(syllable sensitive rule)과 그렇지 않은 규칙(syllable insensitive rule)이 적용상 경쟁을 보일 때는 음절구조에 무관한 규칙부터 먼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규칙의 적용 결과 우리말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구조보존원리(Structure preservation principle)에 의해 그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음절구조를 언급하는 규칙이나 조건들에 의해 합당한 음들이 유도됨을 보이고자 한다. 이 글은 자질기하학 (Feature Geometry)을 전제로 한다.<sup>1</sup>

## 1. 음절화 (syllabification)

우리말의 음절은 아래와 같은 음절구조공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1) 음절구조공식(Syllable Structure Algorithm)

a. 음절핵 설치 (N-Placement):

X		N
[-cons]	->	[-cons]

b. CV-규칙: (X) X -> (X) X

N		N'
X		X

c. 음절말음 규칙(Coda Rule): N과 N' 사이에 N'를 세워 음절핵에 후속하는 자음 하나를 연결시킨다.

Rubach (1990: 81)에 의하면 음절핵 설치와 CV-규칙은 언어보편적이며 음절말음 규칙은 언어에 따라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다.<sup>2</sup> 음절핵 설치 (1a)에 의해 모음이 음절핵으로 연결된 후, CV-규칙 (1b)에 의해 음절핵에 선행하는 하나의 자음만이 음절에 연결된다. 이어서 우리말의 음절에서는 말음이 가능하므로 음절말음 규칙 (1c)에 의해 음절핵에 후속하는 자음 하나가 N'로 연결되어 음절구조의 최대치인 CVC가 얻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절구조공식은 음운규칙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공식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음절화규칙(syllabification)에 의해 음절(@)이 형성된다고 보고, 음절핵(N), 운모(N'), 음절(N'')등을 일일이 표시하지 않으며, 골격층열(skeletal tier)를 X대신 C나 V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제 음절의 형성과 그와 관련되어 적용되는 음운규칙들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저해음 중화와 기음화

음절화및 그에 따르는 저해음과 공명자음인 비음및 측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규칙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      @		@      @		@      @
	\   /		\   /		\   /
2) a.	V C C V C	->	V C C V C	->	V C C V C
		1)		3)	
	i s' n i n		i s' n i n		i s' n i n
	/있는/ -> [인는]				
b.	@      @				
	/				
	V C V	->	V C V		
		1)			
	i s' e		i s' e		
	/있어/ -> [이써]			1) 음절화(Syllabification)	
				3) 중화(Neutralization)	
				4) 공명자질전파([+son] Spreading)	

(2a)의 경우 음절화규칙에 따라 음절이 구성된 후 첫음절의 말음 'ㅅ[s']은 음절 말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저해음 중화규칙 (3)에 의해 음절말음의 모든 끝자질 (terminal features)이 자신을 지배하는 마디로 부터 떨어지게 된다. 이어서, (4)의 공명자질전파에 의해 후속하는 음절의 첫자음 'ㄴ[n]'의 자질이 전파되어 'ㄴ[n]'으로 완전동화된다.

(2a)에서 완전동화에 의해 후속하는 음의 자질이 전파되어 음절말음 'ㅅ'이 'ㄴ'으로 발음된다. 저해음중화에 의해 음절말음 'ㅂ, ㅍ'은 'ㅂ'으로, 'ㅅ, ㅈ, ㅊ, ㅌ, ㄷ, ㅌ, ㅎ'은 모두 'ㄷ'으로, 그리고 'ㄱ, ㅋ, ㆁ'은 'ㄱ'으로 중화된다. (파열음, 지속음, 경음의 상세한 표시는 김기호(1987)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1b)의 CV-규칙에 의해 음절말음이 아니라 음절첫음으로 연결되는 (2b)에서의 'ㅅ[s']은 그 음가가 그대로 실현된다.



Kiparsky 1982)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표류자 삭제는 음절마디까지 보아야 하는 규칙으로 분절음층열(segmental tier)에서만 이루어지는 기음화규칙보다 구조기술이 복잡하므로 먼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순서에 의해서는 올바른 표면형이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분절음층열에서 적용되는 음운규칙인 기음화규칙부터 적용시키고 그 결과가 구조보존원리(Structure preservation principle, Kiparsky 1985)를 어기지 않으면, 그 후에 음절구조와 관련된 규칙인 표류자 삭제를 적용시킨다면 올바른 표면형이 도출된다. 만약 분절음층열에서 적용되는 규칙이 적용된 결과 구조보존원리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이어서 음절구조와 관련된 규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음절구조를 언급하지 않는 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그 도출과정의 적격성심사는 구조보존원리가 담당하고, 그 후에 음절구조와 관련된 규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sup>6</sup>

- 9) 규칙적용 결과 구조보존원리를 어기지 않는 분절음층열의 음운규칙을 최대한 적용시켜라. (Maximize the application of rules on the segmental tier as long as the result of their application does not violate the structure preservation principle.)

이런 상황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0)과 (11)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본다. 기음화 규칙에 따르면, 무기파열음 'ㄱ [k], ㄷ [t], ㅂ [p]'은 'ㅎ [h]'의 앞뒤에서 'ㅎ [h]'와 융합하여 각각 'ㅋ [kʰ], ㅌ [tʰ], ㅍ [pʰ]'으로 바뀐다. 또 이때 생기는 기음들은 음절말음으로서 불가능하므로 후속음절의 첫음으로 연결된다.

다음은 음절말음으로 실현될 수 없는 'ㅎ [h]'이 두 가지 음운규칙을 거칠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살펴 보자.

- 10) a. 

@	@	@	@	@	@
/ \	/ \	/ \	/ \	/ \	/ \

CVCCVC → CVCCVC → CVCCVC → CVCCVC  
| | | | | 1) | | | | | 3) | | \* | | | 4) | | \ | | |  
n a h n i n      n a h n i n      n a h n i n      n a n i n  
/남는/ → [난는]
- b. 

@	@	@	@	@	@
/ \	/	/ \	/	/	/

CVCCV → CVCCV → CVCCV → CVCV 3) 중화  
| | | | | 1) | | | | | 7) | | \* | | 6) | | | | 7) 기음화  
n a h k o      n a h k o      n a h k o      n a k<sup>h</sup> o 6) 표류자삭제  
/남고/ → [낙코] 또는 [나코]

음절화 결과 (10a)의 음절말음 'ㅎ [h]'은 중화규칙에 의해 모든 끝자질이 소거된 후 (4)의 공명자질전파에 의해 후속하는 'ㄴ [n]'과 완전동화한다. (10b)에서는 음절말 위치에서 'ㅎ [h]'이 중화되지 않고 후속하는 'ㄱ [k]'과 융합하여 'ㅋ [kʰ]'으로 변한다. 만약 음절말 위치에서 'ㅎ [h]'이 중화된다면 경음화규칙(Tensing)에 의해 \* [나꼬]나 \* [낙꼬]와 같은 부적격의 표면형이 도출될 것이다. 음절구조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음화규칙과 음절구조에 민감한 중화규칙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환경에

서 기음화규칙이 먼저 적용되어야만 바람직한 표면형이 도출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b 참고).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는 중화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 결과로 기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저해음이 도출되어 바람직한 표면형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

	@   @   @		@   @   @	
	/i/ /i\ /i\		/i/ /i\ /i\	
11)	C V C V C C V C	->	C V C V C C V C	->
	k'æ k'i s h a n		k'æ k'i s h a n	
	/깨끗한/ -> [깨끄탄]			

	@   @   @		@   @   @	
	/i/ /i\ /i\		/i/ /i/ /i\	
	C V C V C C V C	->	C V C V C V C	
	k'æ k'i t h a n		k'æ k'i t' h a n	
	[k'æk'i t'han]			

1) 음절화규칙  
 3) 중화규칙  
 7) 기음화규칙  
 6) 표류자 삭제규칙

중화에 의해 둘째음절의 말음 'ㅅ [s]'의 모든 끝자질과 상위마디와의 연결이 끊어진 후, 잉여규칙(redundancy rules)에 의해 자질이 채워져, 자음 가운데 가장 무표음인 'ㄷ [t]'이 도출된다. 여기에 후속하는 'ㅎ [h]'이 융합하여 바라는 바의 표면형 'ㅌ [tʰ]'을 만들어 낸다.

(5)에 이은 (10)과 (11)를 통해서 (9)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b)에서 분절음층렬의 규칙인 기음화에 의해 'ㅎ [h]'과 'ㄱ [k]'이 융합된 음 'ㅋ [kʰ]'은 우리말의 음절첫음으로 합당하다. 그러나 (10a)에서 'ㅎ [h]'과 'ㄴ [n]'이 융합되는 경우 생성되는 [nʰ]는 우리말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11)에서도 음절말음 'ㅅ [s]'과 'ㅎ [h]'이 융합하게 되면 [sʰ]와 같이 실현 불가능한 음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구조보존원리에 의해 기음화과정은 저지되고, 이어서 음절구조와 관련된 저해음중화가 일어나게 된다.

12) a.	/n/	*/nʰ/	b.	/s/	*/sʰ/
	C	C		C	C
	R	R		R	R
	/   \	/   \		/ \	/ \
	L [+son] SL	L [+son] SL		L SL	L SL
	/ \	/ \		/ \	/ \
	M P	[+SG] M P		M P	[+SG] M P
				[+cont]	[+cont]

/n/과 /s/의 표시는 (12a)와 (12b)의 왼쪽과 같다. 만약 기저표시에서나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12a)와 (12b)의 오른쪽과 같이 [+SG]가 비음이나 지속음에 명시된 [nʰ]나 [sʰ] 같은 형이 나오게 될 경우는, 구조보존원리에 의해 그 도출과정이 중단되거나 기저표시가 비문법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되는 단계에서는 음절구조와 관련된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10a)과 (11)에서 [h]와 [s]가 중화되어, 이후 각각 공명자질전파와 기음화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9)가 음절화와 관련된 공명음과의 규칙적용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 3. 축음의 비음화

저해음과 축음 'ㄹ [l]'과 관련된 음운규칙을 살펴보자. 'ㄹ'은 음절말음으로는 가능하나, 선행음절의 말음이 'ㄹ'이거나 모음사이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절첫음으로서 불가능한 음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ㄹ'이 동기관 비음(homorganic nasal)인 'ㄴ [n]'으로 바뀐 후, 앞선 파열음을 비음화시킨다.

- 13) a. 측량 -> 측냥, 부벽루 -> 부병누  
 b. 법률 -> 범눌  
 c. 로인 -> 노인, 락원 -> 낙원 (cf. 실락원)  
 cf. 노루, 누룩, 길이, 이 길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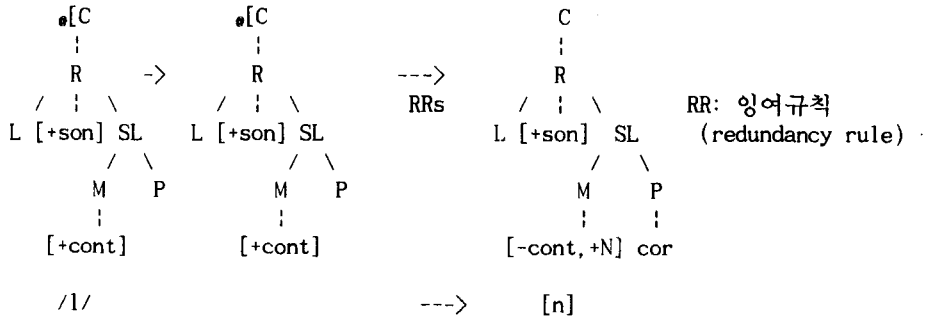
이에 근거하여 음절첫음으로 'ㄹ'이 올 수 없다는 것을 (14)의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4) 음절첫음조건(Onset Condition)

$$\begin{array}{c} *_{\emptyset}[C \\ | \\ l \end{array}$$

음절첫음 'ㄹ'이 'ㄴ'으로 바뀌는 과정을 김기호(1987)은 (15)로 나타내고 있다.

#### 15) 축음의 비음화(/l/-nasalization)



한편, 김종미(1986)은 선행자음이 있거나 어두에 오는 'ㄹ [l]'이 'ㄴ [n]'으로 바뀌는 규칙으로서 (16)을 설정하고 있다.

#### 16) $l \rightarrow n / \{C, \# \} \_$

그러나, {C, #}의 환경은 분명 음절경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녀는 이 규칙을 음절

구조와는 관계없는 규칙(syllable-insensitive rule)으로 보고, 음절구조와 관련된 규칙(syllable sensitive rule) 이후에 적용되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다. 음절구조와 관련하여 음운규칙의 순서를 일관성있게 설정한 점은 설득력이 있으나, (16)에서 음절첫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환경설정엔 설명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ㄹ’이 음절첫음 위치에서 ‘ㄴ’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13)의 예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음절화에 이어서 후속 음운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	@	@	@	@	@
	/!\	/!\	/!\	/!\	/!\	/!\
17) a.	CV CC VC	CV CC VC	CV CC VC	CV CC VC	CV CC VC	CV CC VC
	c <sup>h</sup> i k l ya ɸ	c <sup>h</sup> i k l ya ɸ	c <sup>h</sup> i k n ya ɸ	c <sup>h</sup> i k n ya ɸ	c <sup>h</sup> i k n ya ɸ	c <sup>h</sup> i k n ya ɸ
	/측량/ -> [측량]					[c <sup>h</sup> iɸnyaɸ]

1) 음절화  
15) 측음의 비음화  
4) 공명자질 전파

	@	@	@	@	@	@
	/!\	/!\	/!\	/!\	/!\	/!\
b.	CV CC VC	CV CC VC	CV CC VC	CV CC VC	CV CC VC	CV CC VC
	p e p l yu l	p e p l yu l	p e p n yu l	p e p n yu l	p e p n yu l	p e p n yu l
	/법률/ -> [법률]					[pəɸnyul]

측음의 비음화에 의해 ‘ㄹ’이 동기관 비음인 ‘ㄴ’으로 바뀌고, 이어서 공명자질 전파에 의해 선행파열음이 그와 동기관 비음인 ‘ㅇ [n]’과 ‘ㅁ [m]’으로 각각 변한다. 다음에는 공명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을 살펴보자.

#### 4. 비음의 측음화

우리말에서 ‘ㄴ’과 ‘ㄹ’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에 두 음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ㄹ’의 연속체로 발음된다. 그러나 선행비음이 ‘ㅇ’이거나 ‘ㅁ’인 경우에는 비음과 측음의 연속체에서 비음이 측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현상은 단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단어보다 큰 단위에서도 일어난다.

- 18) 전라도 -> 절라도  
달나라 -> 달라라  
내가 갈 나라 -> 내가 갈 라라  
cf. 강릉 -> 강능  
감로주 -> 감노주  
이 길로 가면, 일렬로 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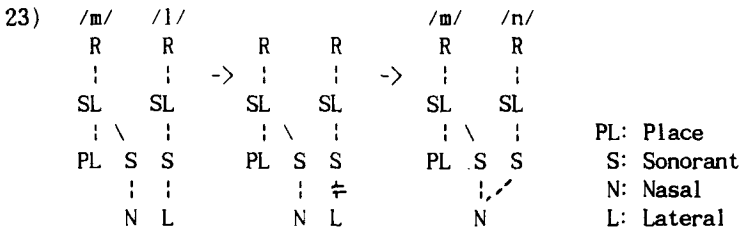
김기호 (1987:149)는 아래 규칙으로 이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이므로 연결제약 (22)에 비추어 볼 때 (20b)는 (14)의 음절첫음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강릉'과 '감로주'의 경우 'ㅇ [n]'과 'ㅁ [m]'이 비음임에도 불구하고 'ㄹ [l]'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연구개음 'ㅇ [n]'의 경우 조음점 마디에 dorsal이, 양순음 'ㅁ [m]'의 경우 labial이 각각 연결되어 (19)의 왼쪽 자음의 구조기술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 5를 참고). 따라서 지속자질 전파가 적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축음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음절첫음 'ㄹ [l]'이 'ㄴ [n]'으로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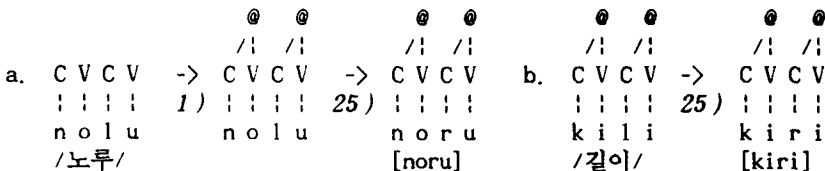
Hirano (1992: 100)는 '강릉, 감로주'에서와 같이 비설정 (non-coronal) 비음 'ㅁ [m], ㅇ [n]'과 'ㄹ'의 연속체에서 'ㄹ'이 'ㄴ [n]'으로 바뀌는 사실을 "장소마디가 명시된 분절음 앞에서의 축음은 그 연결선이 끊어진다(The Lateral node is delinked before a segment which is specified for the Place node.)"로써 기술하여 예를 들면 '감로주'에서의 'ㅁ [m], ㄹ [l]' 연속체의 변화를 (23)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sup>8</sup>



자질기형학의 표시가 김기호와 다르나 여기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Hirano의 설명은 'ㄹ'이 음절첫음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로인 -> 노인'에서와 같이 선행자음이 없는 어두에서도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을 (23)으로써는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의 경우 또 다른 '/l/ -> /n/'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김종미와 마찬가지로 두 위치에서의 'ㄹ'이 모두 음절첫음이라는 사실을 통찰하지 못한 것이다.

(20)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ㄹ'이 음절첫음 조건 (14)에 의해 음절첫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앞에서 보았다. 겹자음으로서의 'ㄹ'이외에 아래에서 살펴볼 듯이 모음사이에서는 'ㄹ'이 음절첫음으로서 존재한다.

24) 표류, 계류, 개량, 노루, 누룩, 길이, ....



25) l -> r / V \_ V

만약 음절화가 이루어진 직후 (14)의 음절첫음 조건이 적용될 경우, 표면형으로서 [노루]가 아닌 \*[노누]가 도출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서도 우리는 (5), (10), (11)의 예에서와 같이 음절구조와 관련된 규칙과 그렇지 않은 규칙사이의 적용순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24)는 축음의 비음화 규칙과 'l -> r' 규칙이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인데 음절구조를 언급하지 않는 'l -> r'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야

다른 한편으로는 'l -> r' 규칙을 재음절화규칙(Resyllabification)으로 간주하여 (유-조영미 1987: 338) 이것을 음절첫음 조건 (14)와 관련지워 볼 수 있다.<sup>9</sup> (24)에서 음절화가 이루어진 후 둘째 음절의 첫음이 'ㄹ'이므로, 여기에 조건 (14)가 적용되어 \*[노누]를 만들어내기 전에 재음절화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재음절화의 결과 'ㄹ'이 음절첫음이면서 동시에 앞 음절의 말음이므로 그 표시는 (26a)가 된다.

	@   @		@   @		@   @		@   @
	/! /!		/!\ /!		/! /!		/!\ /!
26) a.	C V C V	->	C V C V	b.	C V C V	->	C V C V
	! ! ! !	27)	! ! ! !		! ! ! !	27)	! ! ! !
	n o l u		n o r u		k i l i		k i r i

	@   @		* @		@   @
	\ /		!		!   !
27) l -> r /	C	cf. 14)	C	20)	C   C
	!		!		\ /
	-		l		l

이 경우 'ㄹ'에는 연결제약에 의해 (14)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ㄹ'을 'ㄴ'으로 바꾸는 축음의 비음화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재음절화의 결과로 두 음절에 걸쳐 연결된 'ㄹ [l]' (ambisyllabic l)이 규칙 (27)에 의해 [r]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모음사이에서의 'ㄹ'의 음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ㄹ'이 음절첫음이면서 동시에 어두에 오게 되는 경우를 살펴 보자.

28) a.	역도 ( <- 력도)	cf.	체력, 노동력
	율법 ( <- 룰법)	cf.	법률
	양산 ( <- 량산)	cf.	질량
	연꽃 ( <- 련꽃)	cf.	수련
b.	너석, 뉴스	cf.	연년이 (=해마다)

(28b)를 제외하고 모두 한자말에서 온 낱말들이다. (28a)를 살펴 보면 'ㄹ'이 소위 이중모음앞의 어두위치에서는 'ㅇ'으로 바뀌고, (13c)에서 보았듯이 단순모음 앞에서는 'ㄴ'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축음의 비음화규칙이 음절 첫머리에서 뿐만 아니라 어두에서도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앞의 (18)의 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식에 의해 음절첫음의 'ㄹ'이 'ㄴ'으로 바뀌게 된다고 본다. 즉 '력도 -> 녉도'로 바뀌며, 한자어에서 온 단어의 어두이며 후속 모음이 이중모음일 경우에는 어두음조건 (29)에 위배되어 (30)에 의해 다시 'ㄴ'이 'ㅇ'으로 바뀌게 된다. 순수한 우리말이나 한자어에서 유래하지 않은 외래어에서는 (29b)에서와 같이, 어두이면서 이중모음이 후속할 때 'ㄴ'이 올 수 있으므로 (29)에 [+Chinese]라는 어휘자질이 첨가된다.

29) 어두음 조건	30) n -> 0 / ㅁ[ _ y
*ㅁ[ny_	[+Chinese]
[+Chinese]	

## 5. 미해결 문제

앞의 여러 예들을 통해 음절첫음 위치에서 ‘ㄹ’이 ‘ㄴ’으로, 그리고 이중모음 앞의 어두위치에서는 ‘ㅇ’으로 바뀌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ㄹ’이 겹자음으로 연결된 (20)과 두 개의 음절에 연결된 (26)에서는 연결제약에 의해 음절첫음 조건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음절첫음의 위치에서도 ‘ㄹ’이 가능함을 보았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18)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음자질([+continuant])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 31) a. 불문물 -> 불문늠, \*불물물  
       b. 전 로동부 장관 -> 전 노동부 장관, \*절 로동부 장관  
           현 로동부 장관 -> 현 노동부 장관, \*혈 로동부 장관  
       c. 류임연 (사람이름)  
       cf. 18) 전라도 -> 절라도, \*전나도  
           내가 갈 나라 -> 내가 갈 라라, \*내가 갈 나라

(31c)는 사람 이름으로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고 본다. 한편 (31a)는 한 단어이지만 ‘불문물’에서 ‘ㄴ’과 ‘ㄹ’의 연결관계가 ‘전라도’에서의 그것에 비해 긴밀하지 못하며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거기에 ‘물’이 결합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31b)는 기존의 두 단어인 ‘로동부’와 ‘장관’이 합쳐 합성명사를 만든 후 여기에 접두사가 첨가된 단어다. ‘로동부 장관’의 어두의 ‘ㄹ’이 ‘ㄴ’으로 바뀐 후 접두사인 ‘전, 현’이 결합된 단어이므로, [전[[노동부] [장관]]]의 구조에서 ‘ㄴ’과 ‘ㄴ’의 연속체가 ‘ㄹㄹ’로 바뀔 수 없다고 본다.<sup>10</sup> (31a)와 (31b)는 그 구성성분이 어떠한 하나의 단어이다. 그에 반해, (18)의 ‘내가 갈 나라’는 단어의 범위를 넘어서 명사구여서 관계절인 ‘내가 갈’과 수식받는 명사인 ‘나라’에서의 ‘ㄹ’과 ‘ㄴ’의 결속 정도가 단어 사이에서의 그것보다는 분명히 밀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ㄹㄹ’의 연속체로 표면화되고 있다. 만약, (31a, b, c)가 한 자어라는 사실에 그 이유를 두려 한다면, ‘전라도’도 한자어이므로 [+Chinese]라는 어휘자질에 의해 지속음자질 전파규칙의 예외로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31)의 예들은 [-지속자질 전파]라는 어휘자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말 음절화에 따른 조건과 그것과 관련된 문제로서 음운규칙들 사이의 적용순서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음절구조공식에 의해 음절화가 이루어진 후, 이론상 음절구조를 언급하는 규칙과 그렇지 않은 규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여타조건(Elsewhere Condition)에 의해 경쟁을 보이는 규칙들 사이의 적용순서를 정할 경우 오히려 비문법적인 표면형이 유도되므로, 이 경우 음절구조를 언급하지 않는 규칙 -- 분절음충만을 언급하는 규칙--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9)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 규칙의 적용은 구조보존원리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어, 규칙적용 결과 구조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출과정은 저지되고, 이어서 여기에 음절구조를 언급하는 저해음중화 규칙, 표류자 탈락규칙이나 음절첫음 조건과 어두음 조건 등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연결제약에 의해 음절첫음 조건에 위배되는 듯한 구조가 합당한 구조로 받아 들여지는 경우들도 살펴 보았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구조기술상 분절을 충렬만 언급하는 규칙을 최대한 적용시키고 난 후 분절을 충렬보다 높은 충렬을 언급하는 규칙을 적용시키는데, 이 중간에 여러 조건이나 원리들이 중재 역할을 하여 올바른 표면형을 생성한다는 것을 우리말의 몇 가지 음운규칙을 통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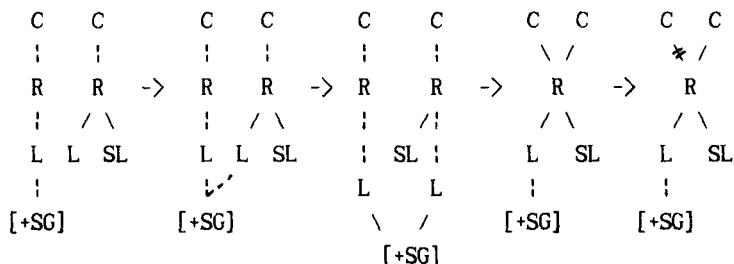
주.

1. 자질기하학의 여러 모델 중 여기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김기호(1987) 을 따른다.
2. 영어에서처럼 음절첫음에 자음이 둘 이상 올 수 있는 경우에 음절첫음규칙 (Onset Rule: Attach the prenuclear Xs to N")에 의해 여러 개의 자음이 N"에 연결 된다.
3. Gussman (1992)에 의하면 음절화되지 않은 자음(unsyllabified consonant)은 아래의 세가지 절차로써 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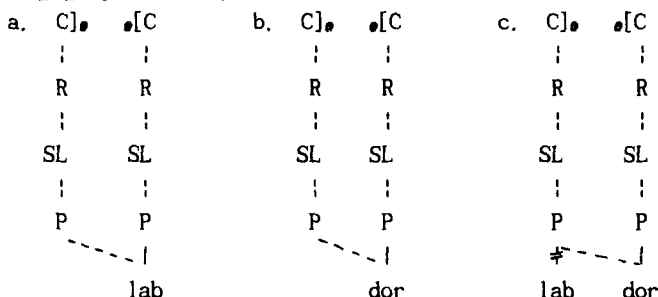
- a) the creation of degenerate syllables to be filled by epenthesis
- b) segments looking unsyllabified are licensed by the prosodic constituent of mora, which prevents them from being deleted by Stray Erasure
- c) unsyllabified segments in intermediate structure are tolerated as long as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syllable at some stage in the phonology

(5a)에서는 음절화되지 않은 'ㅎ [h]'이 표류자 삭제에 의해 탈락되나, (5b)의 'ㅎ [h]'은 c)에 의해 구제되어 후속음 'ㄱ [k]'과 융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탈락, 비탈락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5), (10)과 (11)등의 예를 통해 살펴 본다.

4. 기음화규칙 (김기호 1987: 170) (경상규칙)



5. 조음점 동화규칙 (김기호 Ibid. 143)



(5a,b)는 치음 (치경음)이 순음이나 연구개음과 이웃할 때 가장 무표음인 치음에 순음과 연구개음의 유표자질인 [lab]과 [dor]이 각각 전파되어 동기관음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5c)는 순음과 연구개음이 서로 이웃할 때 연구개음 자질이 전파되면서 순음자질이 탈락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a, b)의 경우는 치음의 조음점마디가 비어 있어서 Avery/Rice(1989)의 전파원리(principle of spreading)에 합당하나, (5c)의 경우는 순음의 조음점마디가 이미 [lab]로써 채워져 있어서 전파원리 (b)에 어긋난다.

*Spreading Principles* (Avery/Rice 1989)

(a) *Spreading can occur only if a structural target is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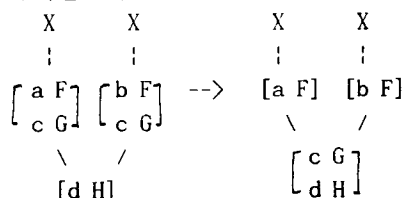
(b) *A feature or node can spread only to an empty position.*

(5c)의 경우 순음의 [lab]자질과 조음점마디와의 연결이 끊어진 후 그 다음에 [dor]

자질이 전파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가 본 논문의 논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으므로 문제 지적으로 그치고자 한다. (5c)에서 [labial]과 [dor]중 어느 자질이 더 유표적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유-조영미 (1991)는 우리말의 조음점마다를 조음기관이론(Articulator Theory)이 아닌 조음점이론(Place of Articulation Theory)의 견지에서 설정하면 연구개음 ([-cor, -ant])이 순음 ([-cor])이나 경구개음 ([-ant])보다 더 유표적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바에 따르면 어느 음이 더 유표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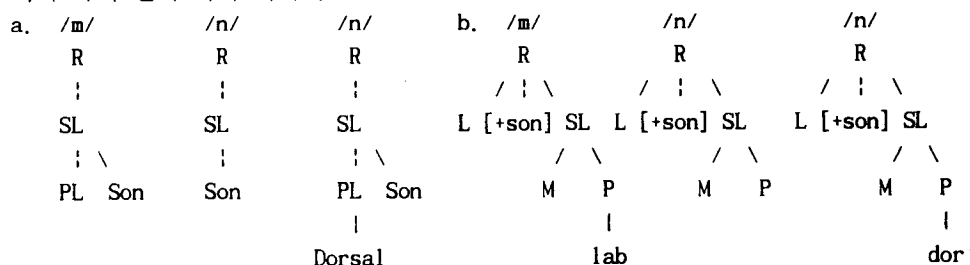
6. 이것과 같은 성질은 아니나, 음절화와 관련하여 분절음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Borowsky(1989: 376)은 Melody Integrity를 제시하고 있다: "*Maximize the association of melodic material.*"

7. 공유자질규약(Shared Feature Convention: Steriade 1982)



이 규약에 의하면, 인접한 두 분절음이 어떤 자질 [d H]를 공유하고, 같은 값을 지닌 또 다른 자질 [c G]를 가질 때, 같은 값을 지닌 자질 [c G]는 [d H]자질층에 결합된다. (20b)에서 두 분절음 'ㄹ'이 각각 C에 연결되어 있으나 공유자질규약에 의해 분절음층렬에서의 하나의 분절음 'ㄹ'이 골격층렬에서 두 개의 CC와 연결된다.

8. Hirano (1992: 94)와 김기호 (1987)에서 우리말의 비음의 기저표시를 각각 (7a)와 (7b)와 같이 각각 나타내고 있다.



Hirano의 /m/에서는 장소마디에 [labial]이 달려 있음직도 하나, 이 자질의 표시가 없이 장소마디의 표기만으로 그 마디의 표기가 없는 /n/과 구분하고 있다.

9. 유-조영미 (1987)는 음절말음의 'ㄹ'이 후속음절의 첫음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을 'ㄹ'재음절화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음절첫음 'ㄹ'이 개음절인 선행음절의 말음으로 연결되는 것도 재음절화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에서 'ㄹ'이 모음 사이에 오기 때문이다.

10. 신기철/신용철(1975)는 '신세대'와 '구세대'에서의 '신'과 '구'를 접두사로, '전총장'의 '전'을 접두사로 분류하여 후속 어간과 붙혀 쓰며 이와 반대어인 '현총장'의 '현'은 관형어로 분류하여 후속 어간과 띄어 쓰고 있다. '현총장'의 경우 '전총장'과 대조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통 관형어 없이 '총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현'과 어간과의 관계가 '전'과 어간과의 관계보다 덜 긴밀한 탓으로 접두사가 아닌 관형어로 쓰이는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 신기철/신용철 (1975)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Avery, P. and K. Rice (1989). Segmental structure and coronal underspecification. *Phonology* 6: 179-200.
- Borowsky, T. (1989). Structure preservation and the syllable coda in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7: 145-166.
- Gussman, E. (1992). Resyllabification and delinking: the case of Polish voicing. *Linguistic Inquiry* 23: 29-56.
- Haas, W. G. de (1988). Skeleton and feature underspecification in Kasem. *Phonology* 5: 237-254.
- Hirano, H. (1992). Underspecification, sonority hierarchy and feature geometry in Korean. *Gengo Kenkyu* 102: 88-120.
- Hayes, B. (1986). Inalterability in CV phonology. *Language* 62: 321-351.
- Kim, J-M. (1986). *Phonology and Syntax of Korean Morph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Kim, K-H. (198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Distinctive Features: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 Kiparsky, P. (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Dordrecht: Foris.
- \_\_\_\_\_ (1985). Some consequences of Lexical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2: 83-138.
- Macfarland, T. and J. Pierrehumbert (1991). On ich-Laut and structure preservation. *Phonology* 8: 171-180.
- Paradis, C. and J.-R. Prunet (1990). On explaining some OCP violations. *Linguistic Inquiry* 21: 456-466.
- Rubach, J. (1990). Final devoicing and cyclic syllabification in German. *Linguistic Inquiry* 21: 79-94.
- Steriade, D. (1982). *Greek Prosodies and the Nature of Syllabification*, Ph.D. dissertation, MIT.
- Yu-Cho, Y-M. (1987). The domains of Korean sandhi rule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28-340.
- \_\_\_\_\_ (1991). On the universality of the coronal articulator. *Phonetics and Phonology* 2: 159-17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사대 영어교육과 712-749  
Fax: (053) 813-0188